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을 2025년 한해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 귀한 공동체의 교회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지는 '매일성경'(월-금)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4. 2025년 제직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부/조창 최명희 김정신 교육부/조은영 한미숙
 교제부/박승화 한정임 박래석 전도부/한규철 서민정 한광기
5. 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성찬식 있습니다. EM 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립니다.

2월 예배위원

안 내	조창		김정신	
기 도	조은영(2)	박래석(9)	한정임(16)	한규철(23)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명샘 장로교회 홈 페이지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길 축원합니다.

저희 생명샘 장로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말씀에 있음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1월 26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목소리 높여서 / 찬송가 6(신) 8(구)

*성시 교독 / 시편 4편 (교독문 3번)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양 떼를 떠나서 / 찬송가 277(신) 335(구)

기도 / 최상천 장로

성경 봉독 / 히브리서 13장 1-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찬송가 322(신) 35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여기에 모인 우리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말씀 요약

1. 서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2.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극진히 잘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3. 억압을 받고 불공평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4. 성적인 죄악에서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5. 재물(돈)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6. 이렇게 전심전력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을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주 설교 요약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엡 3:14-21

1.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며 앞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 “무릎을 꿇고 비노니”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던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태도를 일부러 밝힌 것은 외식이 아닌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제목은 건강을 내던질 만큼의 애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상황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의 애절함의 기도를 성령께 의지해 봅시다.

3.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신(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의식주의 것이 아니라 경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 속사람이 강건하게, 2)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하게, 3)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4)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4. 이러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강건, 사랑, 하나님의 충만)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